

POLITICS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광주·전남 정치권, 대선 ‘호남 표심잡기’ 올인

아기 물범 ‘몰랑이’ 이름 확정
우치동물원, 시민 투표로 선정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물범의 이름이 ‘몰랑이’로 확정됐다. 광주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지난 5일과 6일 우치동물원 해양동물관에서 진행된 현장 스티커 투표 결과, 아기 물범 이름이 ‘몰랑이’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몰랑이’는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아기 물범의 외형을 잘 표현한 이름으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부각돼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이름 공모전에는 총 1270명이 참여했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몰랑이’, ‘초아’, ‘몰콩이’ 3개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최종 결과는 우치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 이름을 제안한 시민 3명에게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홍보물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아기 물범 이름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동물 간 교감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몰랑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27일까지…통계 등 52개 항목

광주시는 시민들의 일자리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일자리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2025 광주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205011호)로, 광주시는 3년 주기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64세 시민으로 표본 4905가구이다.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 및 구직 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정책, 경력단절여성, 광주형 일자리, 기본 인구통계 등 총 8개 부문 52개 항목으로 구성, 지역 일자리에 대한 시민 인식을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애로사항, 중장년 재취업 수요,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장애 요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수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 광주시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던 2019년 제1회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내 일자리 기회가 제한적이고, 임금 상승·고용 안정 등에 대한 우려가 확인돼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불안이 컸던 2022년 제2회 조사에서는 광주시 일자리 지원 및 취업촉진 노력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ی겠다”며 “조식 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



민주, 5·18민주광장·순천서 선대위 출정식
국힘·민노당, 선대위 발대…첫 거리유세 등

제21대 대선 선거운동이 12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선대위 출정식으로 22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이날 광주와 순천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6월 3일 투표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먼저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선대위 구성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핵심 당원 및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다.

양부남 광주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지역 국회의원, 정청태 중앙선대위 골목골목위원회 광주전남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출정식은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잘 사는 광주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현정을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와 광주의 자존심 회복을 선언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진짜 대한민국 광주선대위’를 출범시킨 광주시당은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점유세를 펼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역위원회별 거점 유세 장소는 동남갑(백운광장), 동남을(동구청사거리), 서구갑(KBS사거리), 서구를(풍암 고가 밑), 북구갑 및 북구를(북구청 사거리 합동), 광산갑(영광동 사거리), 광산을(신창IC 사거리)에서 진행되며, 출근 인사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광주시당 선대위와 각 지역위원회 선대위는 유기적으로 활동하며, 등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오전 10시 순천 아랫강에서 선거운동 출정식과 함께 첫 거리유세를 시작한다.

전남도당은 지난 3일 ‘용광로·포용·경청’을 기조로 내세우며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선대위에는 지방의원, 핵심 당원, 교육계, 종교계, 농어민, 시민사회 등이 참여했다.

전남도당은 전남 투표를 85%, 득표를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태 장미원 앞에서 광주시선대위 직원들과 학생들이 21대 대통령선거 ‘풀싸 찍었수다’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한다.

국민의힘도 김문수 후보가 11일 공식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함에 따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국민 광주시당은 지난 10일 광주시당에서 선대위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개최, 대선 필승을 다짐했다.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

역 선거 전반을 이끌어가며 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주요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과 각 본부장으로 임명해 국민의힘 후보를 광주시민이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및 주요 본부장 등 50여 명이 함께해 대선승리의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이날 선대위 발대

식을 개최하고 12일 별도의 출정식 없이 100여 명이 전남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정의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후 1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권영국 대선 후보 광주·전남권역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다. 민주노동당 출정식에는 녹색당 광주시당,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출범…“미래 전략 연구 집중”

광융합 산업·기술 발전
4자간 업무협약 체결도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난 9일 기존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고등광기술연구원(APRI·원장 고도경)’으로 공식 승격된 것을 기념해 개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철·민형배 국회의원과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신웅진 한국광기술원 원장, 김동근 한국광융합진흥회 부회장, 윤진희 한국물리학회 회장, 이상민 한국광학회 회장 등 주요 기관 인사들과 50여 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여 개 국방·방산업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GIST에서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정성호 연구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도경 원장(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초강력 레이저와 광기반 기술을 선도하고 우주·국방·바이오·양자정보·에너지 등 미래 전략 분야 연구에 집중하겠다”며 “국가의 차세대 광산업 육성과 함께 글로벌 난제 해결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난 9일 기존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고등광기술연구원(APRI·원장 고도경)’으로 공식 승격된 것을 기념해 개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기여하는 세계적 광기술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포스트 광산업 기술교류회’에서는 고등광기술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로 레이저 전문업체 ㈜루메닉스(대표 신우진·고등광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가 소개됐다. 이 회사는 손익부·김기현·유난이·김복현 박사 등 고등광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직접 참여한 ‘오픈 테크(Open Tech) 세션’을 통해 보유 중인 특허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대학-기업 간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2부에서는 연구원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을 시작으로, 개원 선언과 연구원 연혁

소개, ‘APRI 2050 비전’ 발표, 광융합기술산업 발전 협력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업무협약식, 고등광기술연구원 초대 소장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고등광기술연구원의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진흥회가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광융합 산업과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첨단 광기술 분야의 연구 협력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장성서 18일까지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정원페스티벌·민간정원축제·숲치유경연 등 다채

장성에서 남도 정원의 맛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에서 남도정원 문화 축제인 2025 남도 케이(K)-가든 페스티벌을 개막,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5~6월 남도 정원의 매력을 내뿜는다.

2025 남도 K-가든페스티벌은 올해를 정원 문화산업 세계화 원년으로 삼고 남도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5~6월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를 개최해 정원관광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행사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기

정 광주시장,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김성 장흥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도의원, 국립정원원 회원, 전남수목원정원협회장, 도민, 관광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페스티벌 주제는 ‘남도정원, 남도인의 삶이 담긴 정원’이다. 남도의 특색있는 꽃과 나무로 가꾼 정원에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주요 행사는 메인 행사로 오는 18일까지 황룡강 지방정원에서 펼쳐지는 전남도 정원페스티벌, 남도정원 산책(전남관광플랫폼 JN TOUR·정원소개 19개소),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구례 쌍산재와 천 개

의 향나무숲, 반야원에서 민간정원 소규모 축제,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숲(정원) 치유경연대회 등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 정원페스티벌은 전남을 대표하는 꽃축제인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9~11일), 나들이꽃 맞이(12~18일)와 연계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대표정원 1개소, 작가정원 4개소, 참여정원 20개소, 총 25개 정원을 조성했다. 황룡강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다양한 정원을 곳곳에 배치해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정원 페스티벌 기간 버스킹 공연, 가든 플라마켓, 드로잉 꽃 그리기, 가든 페이스 페인팅, 다육이 심기, 미니 정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장성=이병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대선 공약돼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성명서 발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인1)는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 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업 중심지”라며 “현장을 모르는 중 앙화는 무의미하다. 농협과 수협 본사는 농수산업의 심장인 전남 땅, 농 어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역시 농협협동조합법 및 수협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무더기 폐기된 바 있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수산 관련 핵심기관이 집적된 지역으로, 농협·수협 본사가 이전될 경우 정책 시너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협·수협 본사의 전남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현 과제”라며, “대통령 후보들은 이를 명확히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대통령 선거 거소·선상 투표 독려

전남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독려에 나섰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건강 이상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택,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합정이나 선상에서 근무 중

인 유권자를 위한 특별제도로, 팩스로 투표지가 송부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전남도는 선거일까지 전남선관위와 협조해 도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에 힘쓰기로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